철학 읽기
24

프리드리히 니체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양의 철학·도덕은 죽었다"


위키피디아

규범과 사상을 깨려고 했던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철학은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유명해요. "신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니체가 도덕의 족보를 따라가 보니,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강하고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결정적이고 자기긍정적인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노예는 약하고 지저분하고 자신감도 없고 의존적이며 자기부정적이에요. 이것은 나쁜 거죠.

이번엔 노예의 입장에서 보죠. 노예가 갖는 가장 강한 감정은 뭘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원한이에요. 노예의 관점에서 주인은 나쁜(Bad) 사람이에요. 단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의미예요. 주인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것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건방진 것이고, 자기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것이며, 자기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노예는 자신을 좋은(Good) 사람으로 봐요. 단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는 의미예요. 약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며,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려심이 있는 것이며,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것이며, 자기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노예를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양을 잡아먹으면서 양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노예의 도덕에 따르면 양에게 독수리는 악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은 주인의 도덕인가요, 노예의 도덕인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니체에 따르면 우리는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은 사랑, 배려, 용서, 민주적, 선량함 등인데 이는 원래 주인의 관점에서는 나쁜 것을 노예들이 선한 도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노예의 도덕을 갖게 되었을까요? 니체는 크리스트교 때문이라고 말해요. 노예들이 크리스트교 사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크리스트교적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용서, 봉사,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어라' 같은 것은 원래 나쁜 것이었는데 노예들에 의해서 선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노예의 도덕은 허구이며 왜곡된 도덕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인의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없애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없애야만 하고요.

서양 철학은 죽었다

신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노예의 도덕이 없어지고, 좋음과 나쁨만을 갖는 주인의 도덕이 다시 새로운 가치 체계가 됐다는 것, 즉 서양 전통의 모든 도덕과 가치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덕과 가치만 죽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니체는 서양 전통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중심에 기독교 사상이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신의 죽음은 단지 도덕과 가치의 죽음일 뿐 아니라 서양 전통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죽음을 의미해요.

결국 니체가 신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철학, 사상, 도덕, 가치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 '전복(顚覆)의 철학자'라고 해요. 니체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인간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했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쌓아 올린 서양 전통의 철학과 도덕은 니체에 의해서 전복됐고, 비로소 현대철학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간은 무엇을 등불로 삼아 살아야 할까요?

현실 세계를 긍정하는 능동적 허무주의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서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요. 마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저기 위에 있는 이데아 세계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 세계는 가짜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트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 저세상으로 간다고들 하잖아요. 현실 세계보다 완전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저 세상, 천국을 중시했죠.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 사상은 대중을 위한 플라톤 사상일 뿐이라고 했어요.

니체에 따르면, 플라톤 사상과 크리스트교 사상에서 현실 세계는 잠깐 거쳐 가는 간이역 같은 것이고, 종착역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허무해요. 허무한 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향락이나 무관심에 빠지는 것이죠. 니체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플라톤 사상과 크리스트교 사상을 '니힐리즘', 즉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신은 죽었어요". 신이 죽었으니 이 세계에서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저 세계가 없어진 거죠. 현실 세계는 그냥 간이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종착역인 겁니다. 그러니 향락이나 무관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어요. 니체는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해요. 즉 능동적 허무주의는 저 세계를 부정하고 현실 세계를 긍정해요.

『5분 뚝딱 철학』
김필영 글 | 김주성 그림 | 스마트북스

프리드리히 니체



A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인간에게 참회, 속죄 등을 요구하는 기독교적 윤리를 거부했으며, 본인을 '망치를 든 철학자'라 부르며 규범과 사상을 깨려고 했다. 현실의 참혹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을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주체와 세계의 지배자인 '초인'에 이를 존재로 보았다.

활동 1 큰소리로 읽고, 따라 써 봅시다. (A파트)